

미국 지방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와 거주 한국인의 만족도

- 미주리주 컬럼비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

Interior Designs of Rural American Housing and the Satisfaction Rates of Koreans Living in the Housing Units

- A Case Study of Koreans Residing in Columbia, Missouri -

신경주* / Shin, Kyung-Joo
장상옥** / Jang, Sang-Ock
이지현*** / Rhee, Jee-H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ffer a guideline for residence planning for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goal,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family's satisfaction rates of interior design and living conditions of houses in American cities, with a case study of families in Columbia, MO. A total of 105 valid samples(126 collected) out of 200 survey questionnaires distributed was acquired and processed with the statistical-aid software SPSS PC+ window version 14.0.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multiple respons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 1) Most of the Koreans preferred interior design and environment similar to their previous Korean residences. 2) Participants were not satisfied with partial/indirect lightings typical in the United States and desired more bright illuminating lights. 3) Participants kept their habit of taking off shoes indoors whil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when designing a house for Koreans living in the U.S., designers should take this into account when designing for Korean residents. 4) Among the American interior elements, storage such as walk-in closets and bathroom cabinets were highly demanded by Koreans, thus possibly to be adopted to Korean houses. Researchers ex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supplying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s to those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키워드 : 인테리어, 만족도, 미국주택

Keywords : Interior Design, Satisfaction, American Hous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문화 간 교류가 활발해져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혼합 및 재창조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인의 이질적인 문화권에서의 거주 기회는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보편화되는 추세이다.¹⁾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양식과 현 거주지의 생활양식을 적절히 조화시킨 혼합된 생활양식을 보인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는 것과 같이 하나의 문화적 유전자 풀(pool)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Rapoport(1980)²⁾의 주장은 우리 문화와 타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생활양식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다.

해외 한국인의 주거 및 주생활 실태를 다룬 연구는 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하고

1)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995년-2005년) 125,3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연간 약 20여만 명(2005년 기준 212,654명)의 유학생이 해외로 유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5).

2)Rapoport, A., Cross-Cultural Aspects of Environmental Design, In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New York, Plenum Press, 1980, p.42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 정회원,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정회원, 위스컨신-밀워키대학교 건축과 박사과정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는 주거공간, 주생활 및 주거조절³⁾과 공간별 생활양식⁴⁾에 관한 연구가 있고, 호주는 주거공간 및 생활양식⁵⁾, 뉴질랜드는 주택 및 주거환경⁶⁾이 있으며 이외에 일본⁷⁾과 러시아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주생활을 다룬 연구가 있었다. 그 동안 미국의 주거와 주생활문화가 우리의 공간 계획, 공간 사용방식, 가구, 기거양식 등과 같은 주거와 주생활 요소에 준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닥 난방방식, 현관, 실내에서 신발 벗기 등 쉽게 변화되지 않는 한국적 생활 방식들도 강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쉽사리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⁹⁾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요소는 앞으로 더욱 글로벌화 되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독특한 주생활문화의 아이덴티티로 공간계획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변용 요소는 현재의 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여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미국의 주거 평면에서 그 동안 지속시켜온 우리의 주생활양식의 불일치로 생겨나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공간 면에서는 주로 현관 구성의 차이로 인한 불편점 등이 지적되었고, 생활양식 면에서는 기거양식과 착탈화 양식의 차이로 인한 주생활 문제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가 보편화된 오늘날, 문화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이질문화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와 주생활을 파악하여 이러한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개 재미 한국인들의 주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내인테리어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여 이의 연구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라는 이질문화권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주택에서 느끼는 실내 인테리어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한 주택 공급의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미국의 경우 한국인 혹은 소수 이민자들의 문화를 고려한 대량의

주택계획 혹은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개인적인 차원의 주문식 주택(custom-built house) 혹은 리모델링 등으로 자국 주거문화를 미국식 주택에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¹⁰⁾ 따라서 늘어난 한국인 장기 체류 및 이민자들의 주거 만족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주거의 증대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속의 주거에의 일부 방향성 제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주택계획 시 이용이 가능하며, 타 소수인종의 주거계획에도 참고가 가능하겠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거주 한국인의 거주자 특성과 이들의 주거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미국주택의 실내인테리어에 대한 한국인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셋째, 미국주택의 거주환경에 대한 한국인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지역

조사대상은 미국 미주리(Missouri)주의 컬럼비아(Columbi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가정이다. 컬럼비아 시는 미국 중부 Central Time Zone에 속한 미주리 주의 한복판에 위치한 인구 94,428명(2008년 현재)의 도시로 미주리대학(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도시이다.¹¹⁾ 컬럼비아 시는 북위 3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 평균기온 16°C~31°C, 겨울 평균기온 -7°C~5°C로 서울과 비슷한 기온 및 날씨를 가진다.¹²⁾ 현재 컬럼비아 시에는 약 4,000여명(4.3%)의 미국 국적 아시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주리대학은 학생 수 30,000명의 주립대학으로 매년 200명가량의 한국 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또한 매년 200여명 내외의 교수 및 연구원들이 교환교수의 신분으로 체류하며, 신문방송학과는 미국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년 40여 명의 한국 공무원 및 신문방송인이 체류한다.¹³⁾ 컬럼비아 시의 재미 한국인은 교포가정, 교환교수 가정 및 학생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는 질문지로 조성희(1996), 이희봉(1998), 장상욱·

3)이희봉, 재미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11호, 1998, pp.103-114; 이도영, 미국 내 한인 이민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조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8호, 1998, pp.31-40; 정무용, 건축문화와 환경행태, 건축 제45권 6호, 2001, pp.10-15

4)유옥순·최병숙, 미국 미조리지역 농촌주택의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분석(I), 한국주거학회지 제8권 1호, 1997, pp.87-96

5)조성희,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9호, 1996, pp.79-71; 이영심, 해외거주 한인의 주거공간 사용 및 주생활 분석을 통해 본 주거문화의 비교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46권 1호, 2008, pp.47-61

6)강부성, 한국과 뉴질랜드의 주택 및 주거환경 거주후 평가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4호, 2006, pp.135-142

7)김광열·진간기 일본거주 한국인의 생활상과 귀향, 한일민족문제연구, 제4호, 2003

8)이영심·조재순·이상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7호, 2003, pp.145-165

9)이희봉, 재미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11호, 1998, p.103; 정무용, 건축문화와 환경행태, 건축, 45권 6호, 2001, p.15.

10)이도영, 미국내 한인 이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조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8호, 1998, p.33

11)컬럼비아시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columbiamo.com/>)

12)Weatherbase 참조 (<http://www.weatherbase.com/>)

13)2005 Annual Census Repor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신경주(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미주리주 컬럼비아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10명의 심층면접을 통한 미국주택에서의 주생활실태 파악 후 이를 기초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주거 특성, 실내인테리어 현황과 만족도 등으로 구성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6년 7월과 8월로 두 달에 걸쳐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 등을 제외한 총 10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다중응답 분석을 적용하였다.

2.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주거 특성, 실내 인테리어 및 만족도, 한국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가족 수를, 주거 특성은 주택 특성(주택종류, 침실 수, 주택면적, 거주지)과 거주 특성(현 주택 거주기간, 미국 총 거주기간, 총 이사 횟수, 월 임대료, 주택선택 시 고려 요소, 주택 선택 경로)을 조사하였다. 미국주택의 실내 인테리어 및 만족도는 각 공간별 마감재, 색채 및 만족도와 조명방식의 만족도 및 불편 사항으로 살펴보았다. 거주환경의 만족도에서 미국주택의 특성 인식은 만족/불만족 사항, 이사 시 고려 요소, 한국 주택에의 도입 희망 요소를, 주생활의 지속과 변용 요소는 생활양식을, 공간별 만족도는 전반적 및 각 공간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폐쇄형과 개방형 문항 및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개방형 문항은 카펫의 불편 사항, 이사 시 희망 요소, 한국주택에의 도입 희망 요소이며 이의 분석은 응답 내용을 분류하여 다중응답분석을 하였다. 폐쇄형 문항 중 다중응답은 주택 선택 시 고려 요소, 조명의 불편 사항, 미국주택의 만족/불만족 요소, 지속 요소, 이사 시 희망 요소, 한국주택에의 도입 희망 요소, 주생활의 변용이었다. 실내인테리어 및 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 미국 거주 한국인 가구의 특성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성별은 남성이 16.5%이며 여성은 83.5%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설문 문항의 특성상 질문지의 답을 가족구성원 중 거주지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주거관리를 담당하는 주부가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연령대는 31-40세가 48.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1-50세(28.2%), 30세 이하(15.5%), 51세 이상(7.8%)으로 나타나 응답자는 30-40대 주부의 비율이 높

았다. 교육수준은 대졸(63.7%)과 대학원 이상(33.3%)이 대부분으로 매우 높았다. 이것은 대학도시의 특성과 외국거주를 결심하게 되는 우리나라 주부의 일반적인 형태로 유추되었으며 컬럼비아 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응답자들의 교육수준도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5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문직(19.6%), 학생(16.7%), 사무·관리직(8.8%), 판매·서비스·자영·생산직(4.9%)의 순으로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전문직과 학생이었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301만원-450만원(\$3,001-\$4,500)(37.6%)과 300만원 이하(\$3,000 이하)(35.5%)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이어서 451-600만원(\$4,501-\$6,000)(18.3%), 601만원 이상(\$6,001 이상)(8.6%)의 순이었다.¹⁴⁾ 이를 한국의 도시가구 월평균소득과 비교해보면¹⁵⁾ 200만원 미만은 25.5%, 201만원-300만원이 27.7%, 301만원-400만원이 23.5%, 401만원-500만원이 10.5%, 501만원 이상이 11.2%인 한국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컬럼비아 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응답자들의 경제수준은 대체로 중류층과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가족 수는 4명(43.1%)이 가장 많았고, 이어 3명(24.5%), 1-2명(16.7%), 5명(15.7%)이었다. 종합하면 조사대상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중·상류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3-4인 가족의 30, 40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7(16.5)
	여성	86(83.5)
연령	30세 이하	16(15.5)
	31세-40세	50(48.5)
	41세-50세	29(28.2)
	51세 이상	8(7.8)
교육수준	고졸	3(2.9)
	대졸	65(63.7)
	대학원 이상	34(33.3)
직업	판매·서비스·자영·생산직	5(4.9)
	사무·관리직	9(8.8)
	전문직	20(19.6)
	전업주부	51(50.0)
	학생	17(16.7)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3,000 이하)	33(35.5)
	301만원-450만원(\$3,001-\$4,500)	35(37.6)
	451만원-600만원(\$4,501-\$6,000)	17(18.3)
	601만원 이상(\$6,001 이상)	8(8.6)
가족수	1-2명	17(16.7)
	3명	25(24.5)
	4명	44(43.1)
	5명	16(15.7)

14)2006년 상반기의 원/달러 환율은 \$1당 940-980원선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1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15)통계청, <http://www.nso.go.kr>,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조, 2005




3.2. 조사대상의 주거 특성

조사대상의 주거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표 3>과 같이 아파트, 2호 연립주택, 독립주택의 세 가지 거주지 타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¹⁶⁾ 그 결과 컬럼비아 시 한국인의 경우 2호 연립주택(46.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39.8%), 독립주택(13.6%)의 순이었다. 미주리 주의 주택분포 통계인 독립주택(68.8%), 아파트(16.2%), 2호 연립주택(3.9%)과 비교¹⁷⁾하였을 때 2호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대학도시의 특성상 장기 거주자보다 일시적인 거주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의 주택특성

변인	구분	빈도(%)
주택종류	아파트	41(39.8)
	2호 연립주택	48(46.6)
	독립주택	14(13.6)
침실 수	1실	3(2.9)
	2실	42(40.8)
	3실	45(43.7)
	4실 이상	13(12.6)
주택면적	93m ² 이하(1000ft ² 이하)	21(28.4)
	93m ² -140m ² (1001ft ² -1500ft ²)	26(35.1)
	141m ² -185m ² (1501ft ² -2000ft ²)	15(20.3)
	186m ² 이상(2001ft ² 이상)	12(16.2)

<표 3> 거주지 타입 분류

분류	특성	이미지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artment / Multi-family residential - 하나의 주거 빌딩에 여러 주거 유닛이 포함된 형태 - 대체로 주택 한 채를 최소 넷 이상의 가족이 사용 - 마당과 주차장을 다른 세대와 공유 	
2호 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mi-detached house - 두 채의 주택을 옆으로 붙여 만든 하나의 주거 빌딩 - 주택 한 채를 두 가족이 나누어 사용 - 대체로 주변의 마당과 차고를 포함 	
독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le-family detached house - 독립된 구조물로 이루어진 주거 빌딩 - 주택 한 채를 한 가족이 사용 - 대체로 주변의 마당과 차고를 포함 	

침실의 수는 80% 이상이 3실(43.7%)과 2실(40.8%)이었으며, 4실 이상은 12.6%, 1실은 2.9%로 매우 적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주리주 주택의 경우, 7실 이상(27.8%),

16) 처음 질문지에서는 한국의 거주지 타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아파트, 타운하우스(연립주택), 2호 연립주택, 독립주택의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질문지 상의 보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혼란이 파악되어, 미국의 분류인 Multi-family residential, Semi-detached house, Single-family detached house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7) U. S. Census Bureau, <http://factfinder.census.gov/>, Profile of Selected Housing Characteristics: 2000

5실(24.2%), 6실(19.6%), 4실(16.8%)이 주를 이루고, 3실(7.8%)과 2실(2.7%), 1실(1.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U. S. Census Bureau, 2000). 응답가정의 침실 수가 적은 것은 위의 거주지 타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거주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거주 주택의 타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주택의 평균적인 방의 수와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 수 대비 침실 수를 고려할 때 가족의 규모 및 상황에 적합한 침실 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의 면적은 93m²-140m² (1001ft²-1500ft²)가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93m² 이하(1000 ft² 이하)(28.4%), 141m²-185m²(1501ft²-2000ft²)(20.3%), 186m²이상(2001ft² 이상)(16.2%) 순이었다.

3.3. 조사대상의 거주 관련 특성

현 주택의 거주관련 특성<표 4>을 보면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55.3%로 가장 많았고, 1-2년이 27.2%, 3년 이상은 17.5%로 현 주택에서는 2년 이하로 거주한 사람이 많은 반면 3년 이상 거주는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에서의 총 거주기간을 보면 역시 1년 미만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4년 이상이 28.4%, 2년(17.6%), 3년(9.8%)으로 4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는 30%가까이 되었다.¹⁸⁾ 미국에서의 총 이사 회수를 보면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50%, 1회가 21.6%, 4회 이상이 11.8%, 3회(9.8%), 2회(6.9%)의 순이었는데, 한 번도 이사하지 않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의 거주자이었다. 이사를 많이 한 경우는 10회까지 있었다. 현 주거를 임차한 경우의 임대료는 61만원-70만원(\$601-\$700)대가 가장 많았고(41.4%), 이어서 71만원 이상(\$701 이상)이 24.1%, 50만원 이하(\$500 이하)와 51만원-60만원(\$501-\$600)은 각각 17.2%로 나타났다.

주거선택 시의 고려 요소는 주택비용(임대료 등)이 50.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안전(34.3%), 학군(32.3%)으로 나타나,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여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18) 거주기간 1년 미만에는 응답자들이 미국의 주거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8개월 이상으로 보고 그 이하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의 미국 거주경험을 토대로 미국 주택에서의 거주만족도 측정이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선행연구(理東理惠, 1993, 1994 등)에서도 1년 미만 거주자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거주 경험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주 후 장기간이 지나면 잦은 이사 등의 이유로 편리성과 만족을 위해 고수하던 한국의 주거 문화를 포기하고 미국의 주택에 적응하려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예리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최근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던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의 주거문화와 대비되는 요소들을 더욱 더 부각시켜 폭 넓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으로 재미교포가정 혹은 이민가정들보다는 미국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1년-5년 미만의 거주가정과 장기체류가정들을 선택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과거 미국(캔사스주 맨하탄시, Manhattan, Kansas)에서의 조사 경험에 따른 것으로, 대다수의 재미교포 및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1950년대에서 1980년대의 한국의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오늘날의 주거환경의 질을 비교하는 설문지를 응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주택의 임대료는 미국 대도시 혹은 한국의 주택임대료와 비교해도 저렴한 편이었으나, 일시적 거주자들의 특성상 추가로 미국에서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를 주택 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유추되었다. 선택 여지가 없었음은 31.3%였는데 이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주거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보였다. 이외의 고려 요소는 학교와의 거리(23.2%), 교통 편리성(21.2%), 자연환경(20.2%), 주택평면(17.2%), 편의시설(14.1%)의 순으로 주거의 위치적(입지적) 요소가 공간적 요소보다 우선시되고 있었다. 주택의 선택 경로는 지인의 소개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인터넷이나 광고 등을 참고하여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27.5%, 학교를 통하여 구하게 된 경우는 3.9%이었다. 이로 보아 주거 선택 시 상당수는 그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을 통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질적 문화에 안전하고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표 4> 거주 관련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현 주택 거주기간	1년 미만	57(55.3)
	1-2년	28(27.2)
	3년 이상	18(17.5)
미국 총 거주기간	1년 미만	45(44.1)
	2년	18(17.6)
	3년	10(9.8)
	4년 이상	29(28.4)
총 이사 회수	0회	51(50.0)
	1회	22(21.6)
	2회	7(6.9)
	3회	10(9.8)
	4회 이상	12(11.8)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500 이하)	15(17.2)
	51만원-60만원(\$501-\$600)	15(17.2)
	61만원-70만원(\$601-\$700)	36(41.4)
	71만원 이상(\$701 이상)	21(24.1)
주택선택시 고려 요소 (다중응답)	주택비용/임대료	50(50.5)
	안전	34(34.3)
	학군	32(32.3)
	선택여지 없었음	31(31.3)
	학교와의 거리	23(23.2)
	교통 편리성	21(21.2)
	자연환경	20(20.2)
	주택평면	17(17.2)
편의시설	14(14.1)	
주택선택 경로	지인의 소개로 선택	70(68.6)
	본인이 선택(인터넷, 광고 등 참고)	28(27.5)
	학교를 통하여 선택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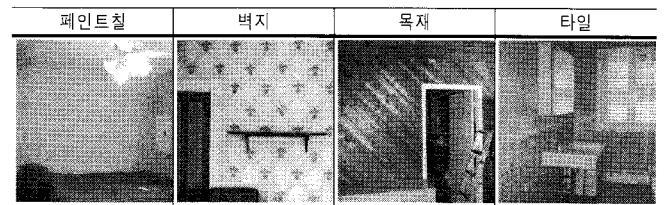
4. 미국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 및 만족도

실내 인테리어 재료는 실내공간의 구성요소 중 환경 심리적으로 영향이 큰 바닥과 벽의 마감재와 만족도 및 색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인과 미국인의 다르게 느끼는 조명환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4.1. 각 공간별 마감재 및 만족도

(1) 벽 마감재

전반적으로 벽 마감재는 페인트칠이 보편적이었으나, 각 공간별로 다소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표 5>. 벽 마감재는 페인트칠, 벽지, 목재, 타일, 기타의 다섯 가지 재료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벽 마감재의 예

거실은 페인트칠(90.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목재(9.1%)로 대부분이 페인트칠 마감이었다. 부엌/식당의 경우는 페인트칠(84.8%), 목재(7.1%), 벽지(6.1%), 타일(2.0%)로 거실에 비하여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침실의 경우는 거실과 같은 경향으로 90% 이상이 페인트칠이 되어 있고 목재는 8.1%이었다. 욕실의 경우는 페인트칠(74.2%), 벽지(13.4%), 목재(7.2%), 타일(4.1%), 기타(1.0%)로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다른 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페인트칠의 비율이 낮았다. 현관의 경우는 페인트칠(89.6%), 목재(9.4%), 타일(1.0%)로 나타났다.

벽 마감재의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3점대 이상으로 보통이상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간별로는 거실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엌/식당(3.18점), 현관(3.14점), 침실(3.13점), 욕실(3.07점)의 순으로 거실 벽 마감재에 가장 만족한 반면, 욕실의 벽 마감재에 가장 불만족하였다.

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거실은 목재(3.25점)가 페인트칠(3.18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부엌/식당은 타일/석재의 만족도는 3.5점으로 높으나, 페인트칠의 경우에는 3.1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침실은 페인트칠(3.13점)과 목재(3.14점)의 만족도가 유사하였다. 욕실은 타일/석재마감의 경우 만족도는 3.50점, 벽지(3.18점), 페인트(3.07점), 목재(3.0점), 기타(2.0점)로 타일/석재 마감일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물을 사용하며 청결이 요구되는 욕실 특성이거나 한국주택에서의 보편적 욕실마감재가 타일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현관은 목재(3.25점)가 가장 높았고, 페인트칠은 3.13점, 타일은 3.0점으로 목재 마감재에 가장 만족하였다.

응답자들의 주택의 벽 마감으로 페인트칠이 많은 이유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바뀔 때마다 임대인이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임차인은 퇴거 시 주택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놓아야 하므로, 다른 마감재에 비해 유지관리 및 재설치(페인트의 경우 칠)가 쉬운 페인트칠이 선호된 것으로 유추되었다.

<표 5> 벽 마감재 및 만족도

N(%)

마감재 공간	페인트칠	벽지	목재	타일	기타	만족도 M(SD)
거실	90(90.9)	0	9(9.1)	0	0	3.20(.88)
부엌/식당	84(84.8)	6(6.1)	7(7.1)	2(2.0)	0	3.18(.92)
침실	91(91.9)	0	8(8.1)	0	0	3.13(.89)
욕실	72(74.2)	13(13.4)	7(7.2)	4(4.1)	1(1.0)	3.07(.92)
현관	86(89.6)	0	9(9.4)	1(1.0)	0	3.14(.89)

각 공간의 재료별 만족도 표는 생략하고 본문에 제시하였음

(2) 벽의 색채

실내공간에서 환경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벽의 색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거실은 흰색(61.7%)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이보리(22.2%), 베이지(12.3%)의 순으로 연한색이 주를 이루었다. 기타의 경우는 하늘색, 녹색, 은회색이었다.

부엌/식당의 경우는 흰색(54.3%), 아이보리(23.5%), 베이지(11.1%),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거실보다는 흰색의 비율이 낮았고 기타 색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기타 색의 경우는 연두색, 녹색, 분홍색, 노란색, 은회색, 여러 색의 복합 등으로 여러 색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침실의 경우는 흰색(58.8%), 아이보리(23.8%), 베이지(10.0%), 기타 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색은 파랑색, 녹색, 노란색, 은회색이었다.

욕실의 경우는 흰색이 과반수(53.1%)였고, 아이보리(23.5%), 베이지(9.9%), 기타 색(13.6%)의 비율이 타 공간에 비하여 높았다. 기타 색은 하늘색, 녹색, 분홍색, 주황색, 은회색, 회색으로 욕실의 색채 환경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현관의 경우는 흰색(57.5%), 아이보리(23.8%), 베이지(11.3%), 기타 색(7.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외는 하늘색, 녹색, 보라색, 은회색, 회색이었다.

종합하면 실내공간의 색채는 흰색은 반 정도, 아이보리는 1/4, 베이지는 10%대로 이들 색이 중심적인 색채이었다. 이를 제외한 다양한 색채는 부엌/식당과 욕실에서 나타났다.

미국인은 이웃과 다른 인테리어와 가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남들과 같은 것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¹⁹⁾ 따라서 미국인 주택의 경우, 실내공간의 환경과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내공간의 색채도 각 가정의 개성과 취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다. 반면, 한국인 거주 주택의 경우 흰색, 아이보리색, 베이지색 등의 연한 모노톤의 색채가 많았는데, 이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이었다. 임대 주택은 그 특성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고 무난하며, 많은 가구들과도 잘 조화되는 연한 모노톤의 벽이 선호되기 때문으로 보였다.

19)Altman, I. &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ole Publishing Company, 1980, p.193

<표 6> 벽의 색채

N(%)

색채 공간	흰색	아이보리	베이지	기타 색
거실	50(61.7)	18(22.2)	10(12.3)	3(3.6)
부엌/식당	44(54.3)	19(23.5)	9(11.1)	9(11.1)
침실	47(58.8)	19(23.8)	8(10.0)	6(7.5)
욕실	43(53.1)	19(23.5)	8(9.9)	11(13.6)
현관	46(57.5)	19(23.8)	9(11.3)	6(7.5)

(3) 바닥 마감재

바닥 마감재는 전면카펫, 부분카펫, 전면+부분카펫, 목재, 리놀륨, 타일/석재, 기타의 일곱 가지재료로 구분하였으며 각 재료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바닥 마감재의 예

바닥의 마감재<표 7>는 거실은 대부분이 전면카펫(95.0%)이었고, 이외에 부분카펫, 목재, 리놀륨, 타일/석재, 기타 재료 있었다. 부엌/식당의 바닥은 리놀륨이 반 정도(48.5%)이며, 나머지는 타일/석재(15.8%), 전면카펫과 부분카펫은 각각 11.9%, 목재(7.9%), 전면+부분카펫(2.9%) 등이었다. 침실은 전면카펫이 보편적이었고(95.0%), 이외에 부분카펫, 목재, 리놀륨, 타일/석재가 일부 나타났다. 욕실은 리놀륨(5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일/석재(28.7%), 전면카펫(11.9%), 부분카펫(4.0%), 목재, 전면+부분카펫, 기타이었다. 현관은 타일/석재가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리놀륨(28.2%)과 전면카펫(22.2%)이었고, 목재는 6.1%로 나타났다.

<표 7> 바닥 마감재 및 만족도

N(%)

마감재 공간	전면 카펫	부분 카펫	전면+ 부분 카펫	목재	리놀륨	타일/ 석재	기타	만족도 M(SD)
거실	96(95.0)	2(2.0)	0(0.0)	1(1.0)	1(1.0)	1(1.0)	1(1.0)	2.68 (1.00)
부엌/식당	12(11.9)	12(11.9)	3(2.9)	8(7.9)	49(48.5)	16(15.8)	1(1.0)	3.10 (.96)
침실	96(95.0)	1(1.0)	0(0.0)	1(1.0)	1(1.0)	2(2.0)	0(0.0)	2.85 (1.02)
욕실	12(11.9)	4(4.0)	1(1.0)	2(1.0)	52(51.5)	29(28.7)	1(1.0)	2.94 (1.05)
현관	22(22.2)	0(0.0)	1(1.0)	6(6.1)	28(28.3)	39(39.4)	3(3.0)	2.92 (1.08)

종합하면 거실과 침실은 대부분이 전면카펫으로 마감되어 있고, 조리를 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공간인 부엌/식당과 욕실의 바닥은 리놀륨 마감이 반 정도이며, 타일/석재 마감재도 상당 부분 있었다. 현관은 타일/석재가 많으나, 리놀륨, 전면카펫도 상당 비율 나타나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기거양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바닥마감재의 만족도는 부엌/식당(3.10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3점미만으로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2.68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침실(2.85점), 현관(2.92점), 욕실(2.94점)의 순이었다. 마감재의 종류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거실은 리놀륨(5점)과 타일/석재(4점)일 때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면카펫(2.64점)과 부분카펫(2.5점)일 때는 불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엌/식당은 목재(4.13점)의 경우 가장 만족하였고, 이어서 리놀륨(3.15점), 타일/석재(3.07점), 전면카펫(2.81점), 부분카펫(2.64점), 전면+부분카펫(2.33점)으로 카펫인 경우의 만족도가 낮았다. 침실의 경우는 목재(3.0점), 전면카펫(2.88점)으로 목재에 만족하고 있었다. 욕실은 목재(4.0점)와 타일/석재(3.21점)의 만족도가 높았고, 리놀륨(2.8점)과 부분카펫(2.67점)의 만족도가 낮았다. 현관에서는 목재(4.0점)와 타일/석재(3.14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전면카펫은 2.52점으로 가장 불만족하였는데 한국 주거의 경우 현관부분에서 신발을 벗어 두기 때문에 경계의 구분이 되지 않는 카펫에 불만족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재미 한국인은 미국주택의 일반적 바닥마감재인 전면 카펫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는데, 이의 불편 사항을 개방형 문항으로 질문하여 불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다중응답분석 한 결과, 위생, 청소, 세탁, 기기 측면의 이유로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표 8>.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점은 위생 측면(63.2%)으로 카펫의 털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진드기 서식, 불결 등에 대한 우려였다. 다음은 청소 측면(55.3%)으로 카펫의 파일로 인해 청소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파자부스리기 등이 떨어졌을 때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세탁 측면(25.0%)에서의 문제점인데, 전면카펫이므로 오염 시 세탁이 어렵고, 클리너로 제거해야 하는 점 등 세탁이 어려움이다. 마지막으로 기기 측면(2.6%)에서 카펫 청소기 자체가 무거워 청소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표 8> 전면 카펫의 불편 사항 (다중응답분석)

내용	빈도(%)
위생 측면(카펫 털 먼지로 호흡기 질환, 진드기 서식 등)	48(63.2)
세탁 측면(세탁 어려움, 클리너 사용)	19(25.0)
청소 측면(청소상태 확인 어려움 등)	42(55.3)
기기 측면(청소기 무거움)	2(2.6)

4.2. 조명방식의 만족도

각 공간별 조명 방식의 만족도<표 9> 및 불편 사항<표

10>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실은 전반조명+부분조명(37.9%)과 전반조명(36.9%), 부분조명만은 25.2%이었다. 부엌/식당의 경우는 전반조명이 87.7%로 가장 많았고, 전반+부분(10.6%), 부분조명(1.9%)으로 나타났다. 침실은 전반+부분조명이 57.7%, 전반조명(33.7%), 부분조명은 8.7%로 나타났다. 욕실의 경우는 전반조명이 87.4%로 대부분이었고, 부분조명이 6.8%, 전반+부분이 5.8%로 나타났다. 현관의 경우는 전반조명이 68.8%이었고, 부분조명이 16.9%, 전반+부분조명은 6.5%이었다.

<표 9> 각 공간별 조명방식의 만족도

조명 공간	N(%)			
	전반조명	부분조명	전반조명 +부분조명	없음
거실	38(36.9)	26(25.2)	39(37.9)	0(0)
부엌/식당	91(87.5)	2(1.9)	11(10.6)	0(0)
침실	35(33.7)	9(8.7)	60(57.7)	0(0)
욕실	90(87.4)	7(6.8)	6(5.8)	0(0)
현관	53(68.8)	13(16.9)	5(6.5)	6(7.8)

<표 10> 조명방식의 불편 사항

(다중응답분석)

내용	빈도(%)
전반조명 없음	16(15.4)
어두움	58(55.8)
천장 팬 부착	9(8.7)
조명방식 불편	7(6.7)
없음	26(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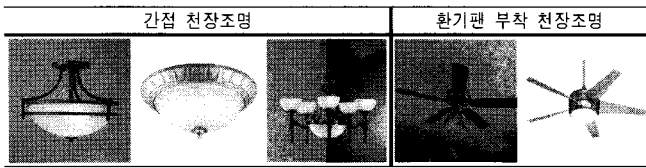
종합하면 부엌/식당, 욕실, 현관은 전반조명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 대체로 전반조명이 보편적이었다. 침실은 전반조명에 더하여 부분조명을 하여 공간의 조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취침 이외에 공부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였다. 거실은 전반+부분조명, 전반조명으로 되어 있었다. 미국 주택은 대체로 욕실과 부엌/식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조명이 설치되지 않고 플로어 램프 등 부분조명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부분조명의 이용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주택의 조명에 대해 조사대상의 25%는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75%는 불편함을 호소하여 상당수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명 관련 불편사항은 어두움(55.8%)이 가장 많았고, 전반조명이 없음(15.4%), 천장 환기팬으로 조명이 산란되어 시선 혼란(8.7%), 조명방식 불편(6.7%)이었다. 미국인은 전반조명보다 은은한 부분조명을 많이 사용하므로 밝은 조명을 사용했던 한국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둡다고 느끼게 되었다.²⁰⁾

미국 주택의 경우 거실 및 침실에 불박이 조명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천장 불박이 조명이 있는 경우

20)이도영, 한인이민가정의 주거조건, 가설검증을 통한 이론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10호 1998, p.14, 8; 장상욱·신경주, 제한 미국인의 주택계획을 위한 사례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9권, 2003, p.80

에도 조명에 전등갓을 씌워 조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 한국 주택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두웠다. 또한 환기팬이 부착된 천장 조명도 매우 일반적이는데, 환기팬의 소음과 환기팬으로 인한 조명의 산란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은 위에서 언급한 간접 천장조명 및 환기팬 부착 천장조명의 예이다.



<그림 3> 여러 가지 천장조명의 예

5. 한국인의 거주환경 만족도

한국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미국 주택의 만족 또는 불만족 사항, 향후 미국 내의 주거 선택 시 고려사항, 한국 주택에의 도입 희망요소, 주생활의 변용 및 지속요소, 미국주택의 종합적인 만족도 등의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응답자 전원에게 다중응답 선택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5.1. 한국인이 보는 미국주택의 만족/불만족 사항

미국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미국주택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사항을 <표 11>과 같이 크게 공간 및 가구, 재료 및 설비, 실외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요소는 수납공간 중 침실의 불박이옷장(walk-in-closet)으로 84.3%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부엌과 욕실의 수납장도 각각 32.4%, 31.4%가 좋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실내 공간의 정리정돈에 많은 도움을 주는 침실의 불박이장과 욕실 수납장은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외공간에서는 정원과 잔디(48.0%)와 차고(42.2%)를 들었으며, 재료 및 설비에서는 냉방방식(32.4%), 난방방식(27.5%), 욕실수와 형태(23.5%)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정원과 잔디를 잘 가꾸는 외부치장과 관련된 활동은 개인성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즉, 독특한 장식으로 개인성을 표출하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유대를 가지기 위함이다.²¹⁾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토지 공간을 가진 한국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넓은 정원 및 차고를 가져보지 못한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미국의 전원주택의 장점에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단점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펫바닥재(73.0%)의 불만족이 가장 많았고, 신발장 없음(58.0%), 실내에

서 신발 신는 생활(50.0%) 등 입식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인 고유의 기거양식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구문화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도 거주지에서의 탈화를 지속시키므로²²⁾ 재미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는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범위 내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인 및 일본인등 좌식 문화를 영유하는 문화권의 거주자를 주 수요자로 예상하고 짓는 주택의 경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난방방식(35.0%), 조명(23.0%), 전압(23.0%) 문제를 단점으로 보고 있었다. 좌식생활에 적합한 바닥 난방에 익숙한 한국인은 입식생활에 맞는 공기난방에 불편함을 느끼며, 통상 220V를 사용하는 한국인과는 달리 110V가 보편적인 미국에서는 기기사용에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형광등의 밝은 조도에 익숙한 한국인은 은은한 램프가 일상적인 미국 조명환경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었다.

<표 11> 미국주택의 만족/불만족 사항

변인	구분	빈도(%)	
만족 (다중응답)	공간 및 가구	평면구획	15(14.7)
		욕실 수, 형태	24(23.5)
		높은 거실 천장	19(18.6)
		현관의 옷장(coat closet)	14(13.7)
		불박이옷장(walk-in closet)	86(84.3)
		부엌수납장	33(32.4)
	욕실수납장	32(31.4)	
	재료 설비	카펫바닥재	5(4.9)
		난방방식	28(27.5)
		냉방방식	33(32.4)
조명		4(4.9)	
실외	콘센트 수	11(10.8)	
	정원, 잔디 차고	49(48.0) 43(42.2)	
불만족 (다중응답)	공간 및 가구	평면구획	8(8.0)
		욕실 수, 형태	4(4.0)
		높은 거실 천장	19(19.0)
		현관 옷장(coat closet)	20(20.0)
		불박이 옷장(work-in-closet)	2(2.0)
		부엌수납장	5(5.0)
	욕실수납장	3(3.0)	
	재료 설비	신발장 없음	58(58.0)
		카펫바닥재	73(73.0)
		난방방식	35(35.0)
냉방방식		12(12.0)	
생활양식	조명	23(23.0)	
	콘센트 수	2(2.0)	
	전압	23(23.0)	
	실내 신발 신는 생활	50(50.0)	

5.2. 향후 주거선택 시 고려 요소와 한국주택에의 도입 희망 요소

앞으로 이사 시에 고려할 요소<표 12>로는 바닥재를 가장

21) Altman, I. &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ole Publishing Company, 1980, p.87

22) 伊東理惠, アメリカに居住する日本人の履床様式, 家庭學研究, 第39卷 2 號, 1993, pp.122-123

많이 지적하였는데, 카펫바닥보다는 목재나 리놀륨 바닥재(35.8%)가 깔린 곳을 희망하였다. 공간적인 면에서는 거실과 부엌이 독립된 평면을 희망하고(11.9%), 넓은 거실 면적(13.4%), 정원(13.4%) 등이 앞으로의 고려요소이다.

<표 12> 이사 시 고려 요소

변인	구분	빈도(%)	
이사 시 희망조건 (다중응답)	공간 및 가구	거실과 부엌/식당 독립	8(11.9)
		거실면적 넓음	9(13.4)
		현관 신발장	2(3.0)
		넓은 현관	3(4.5)
		침실 수 증가	4(6.0)
		넓은 침실 면적	2(3.0)
		1층에 침실 위치	5(7.5)
		욕실 수 증가	4(6.0)
		욕실 이동식 샤워기	1(1.5)
	욕실 배수구 있음	3(4.5)	
	재료 및 설비	바닥재(목재, 리놀륨)	24(35.8)
		채광 좋음	5(7.5)
		조명 밝음	2(3.0)
		방음 잘 됨	4(6.0)
		바닥난방	6(9.0)
실외 및 위치적 요소	정원	9(13.4)	
	차고/지하실	5(7.5)	
	남향집	4(6.0)	
	교통편리	3(4.5)	
	조용한 곳	2(3.0)	

<표 13> 한국주택에의 도입 희망 요소

변인	구분	빈도(%)	
한국주택 도입희망 요소 (다중응답)	공간	전반적 수납공간	26(37.1)
		침실 walk-in-closet	15(21.4)
		문턱 없음	2(2.9)
		부엌수납공간	3(4.3)
		욕실수납장	4(5.7)
		욕실 배수구 없음	6(8.6)
	설비	욕실 크기	1(1.4)
		거실 전장팬	1(1.4)
		부엌 디스포저	9(12.9)
		부엌 불박이 가전기기	5(7.3)
		욕실샤워부스	1(1.4)
		냉·난방 방식	12(17.1)
		콘센트 수	2(2.9)
	실외	차고	10(14.3)
		정원	10(14.3)

한국주택에 도입하고 싶은 요소<표 13>를 보면 전반적인 수납공간(37.1%), 침실 불박이 옷장(21.4%), 냉방방식(17.1%), 정원과 차고가 각각 14.3%로 나타나 충분한 수납공간과 장롱 가구가 불필요한 walk-in-closet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냉방 방식 면에서는 에어컨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중앙냉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이 경우 한국 거주 미국인들의 경우에서도 같은 불편함을 지적하였다.²³⁾ 즉 미국주택은 중앙냉난방 시스템으로 냉방기기를 두는 장소가 불필요하나 한국주택에서는 에어컨 설비를 위한 위치가 고정되어 거실 가구배치에 방해 받는 점 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었다.

23)장상욱·신경주, 재한 미국인의 주택계획을 위한 사례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9권, 2003, p.80

이외에 한국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부엌의 디스포저(12.9%)를 지적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하수도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도입이 어려운 요소이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3. 주생활의 변용과 지속 요소

이질적인 서구주택에서 생활하게 된 한국인 거주자들이 변화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주생활양식 중 어떤 점이 변화되었고 또 어떤 점은 지속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14>. 이러한 변용과 지속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남겨야 할 우리의 주생활의 고유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주생활은 욕실청소방식(50.0%)과 세탁방식(46.1%)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미국주택의 욕실바닥은 배수구가 없으므로 욕실청소는 욕실전용세제를 이용하여 욕조, 세면기, 변기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청소방식이 변화되게 되었고, 세탁실 또한 배수구가 없이 세탁기와 의류건조기를 둔 공간이며, 세탁물 건조할 공간이 없어 일광건조 없이 기기에 의존한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닥에 잘 앉지 않거나(35.3%), 입식 생활이 많아졌으며(33.3%), 목욕방식이 변화되었음(29.4%)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내화를 신게 되었거나(19.6%), 침대취침(11.8%)으로 바뀐 점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도 변화되지 않은 주생활양식은 실내탈화가 76.2%로 가장 많아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양식은 쉽게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욕조목욕+실내탈화(9.9%), 좌식생활+실내탈화(7.9%), 욕조목욕(5.9%)을 지적하여 변화된 주거환경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주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4> 주생활의 변용과 지속요소

변인	구분	빈도(%)
주생활 변용 (다중응답)	바닥에 잘 앉지 않음	36(35.3)
	의자식 생활이 많아짐	34(33.3)
	침대취침	12(11.8)
	세탁방식 변화	47(46.1)
	욕실청소 방식	51(50.0)
	실내화 신음	20(19.6)
	목욕방식 변화	30(29.4)
	모두 해당	1(1.0)
주생활 지속	없음	4(3.9)
	욕조목욕	6(5.9)
	실내탈화	77(76.2)
	좌식+실내탈화	8(7.9)
	욕조목욕+실내탈화	10(9.9)

5.4. 미국주택 거주 한국인의 주거만족도

미국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주거만족도는 다음 <표 15>에 제시되었다. 미국주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만족도는 평균 3.33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

로 보면 보통이 43.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만족(38.0%), 불만족(13.0%)의 순으로 나타나 80%이상이 보통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15> 미국주택의 종합적 만족도 및 공간별 만족도

만족도 공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M(SD)
종합평가	5(5.0)	38(38.0)	43(43.0)	13(13.0)	1(1.0)	3.33(.80)
거실	7(6.9)	33(32.7)	47(46.5)	11(10.9)	3(3.0)	3.30(.87)
부엌	6(5.9)	26(25.7)	50(49.5)	17(16.8)	2(2.0)	3.17(.85)
식당	4(4.3)	25(26.6)	46(48.9)	18(19.1)	1(1.1)	3.14(.81)
침실	4(4.0)	34(33.7)	54(53.5)	9(8.9)	0(0.0)	3.23(.69)
욕실	1(1.0)	28(27.7)	50(49.5)	18(17.8)	4(4.0)	3.04(.81)
현관	2(2.0)	19(19.4)	42(42.9)	26(26.5)	9(9.2)	2.79(.93)
세탁실	7(7.4)	37(39.4)	39(41.5)	11(11.7)	0(0.0)	3.43(.80)
발코니	3(4.5)	25(37.9)	39(43.9)	7(10.6)	2(3.0)	3.30(.84)

공간별 만족도를 보면 세탁실(3.43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거실과 발코니(각 3.30점)이며, 다음으로 침실(3.23점), 부엌(3.17점), 식당(3.14점), 욕실(3.04점), 현관(2.79점)의 순이었다.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공간은 욕실과 현관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간은 기존에 지속했던 자신의 주생활양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곳인데 이를테면 욕실에서는 바닥 배수구가 없으므로 물청소를 하거나 바닥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편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현관공간은 실내공간과 경계가 모호하여 실내에서 신을 벗고 생활하는 우리의 주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불만족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6.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미국 미주리주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와 거주 한국인의 거주환경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공간별 마감재 만족도에서 한국인은 대체로 한국의 거주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선호하였다. 바닥재로는 마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카펫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 중 한국인의 거주를 고려한 주택의 계획 및 공급 시에는 목재를 위주로 하는 마룻바닥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부엌 및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쉬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타일 혹은 리놀륨의 바닥 마감재를 권장한다. 벽 마감재의 경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 마감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는 않으나 임대주택이라는 특이사항을 고려할 때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내조명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차이로 이해되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형광등을 사용하여 집 전체를 밝은 조도로 유지하려고 하나, 미국에서는 주

로 백열등을 사용하고, 전체조명 보다는 부분조명을 사용하여 은은하고 편한 느낌을 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재미 한국인을 위한 주택 계획 및 공급 시에는 높은 조도의 천장 조명을 사용하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형광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를 조언한다.

셋째, 한국인은 카펫 바닥 보다는 목재 마룻바닥을 선호하였음으로, 한국인을 위한 주택 계획 및 공급 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또한 입식 문화지역에 살더라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현관과 거실의 구분을 명확히 두고,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하도록 배려할 것을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택 요소 중 한국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어 한국의 주택에 도입하기를 추천하는 항목으로 불박이장과 욕실 수납장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미국식의 바닥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세탁 공간도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여 한국의 주택에 적용가능성이 타진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인 다용도실, 혹은 베란다의 세탁 공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관점에서 미국 주택의 인테리어 및 거주환경의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미국에서의 한국인들을 위한 주택 계획 및 공급 시, 그 주택들이 좀 더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적합화되어 안락함과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미주리주 컬럼비아시라는 미국 중부의 작은 대학도시에서 조사된 것으로, 지역에 따라 문화, 기후, 인종 등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미국의 특징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전역의 기준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Altman, I. &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ole Publishing Company, 1980
- Rapoport, A., Cross-Cultural Aspects of Environmental Design, In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New York, Plenum Press, 1980
- 2005 Annual Census Repor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강부성, 한국과 뉴질랜드의 주택 및 주거환경 거주 후 평가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4호, 2006
- 김광열·전간기, 일본거주 한국인의 생활상과 귀향, 한일민족문제연구, 제4호, 2003
- 유옥순·최병숙, 미국 미조리 지역 농촌주택의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분석(I), 한국주거학회지, 제8권 1호, 1997
- 이도영, 미국내 한인 이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조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8호, 1998
- 이영심, 해외거주 한인의 주거공간 사용 및 주생활 분석을 통해 본 주거문화의 비교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46권 1호, 2008
- 이영심·조재순·이상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주거에 관한 연

- 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7호, 2003
10. 이희봉, 재미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11호, 1998
 11. 장상옥·신경주, 재한 미국인의 주택계획을 위한 사례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9권, 2003
 12. 정무웅, 건축문화와 환경행태, 건축 제45권 6호, 2001
 13. 조성희,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9호, 1996
 14. 허준수, 재미한인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 만족도, 주거 선호도, 비공식 후원 및 공식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12권 제2호, 1996
 15. 伊東理惠, アメリカに居住する日本人の履床様式, 家庭學研究, 第39卷 2號, 1993
 16. 伊東理惠, アメリカに居住する日本人の洗濯様式, 家庭學研究, 第40卷 2號, 1994
 17. 통계청, <http://www.nso.go.kr>,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조, 2005
 18. City of Columbia, <http://www.gocolumbiamo.com/>
 19. The Weatherbase, <http://www.weatherbase.com/>
 20. U. S. Census Bureau, <http://factfinder.census.gov/>, Profile of Selected Housing Characteristics: 2000

<접수 : 2008. 9. 4>